2021.1.31 참사랑교회 주일낮예배 메시지

RUTC성전의 빈곳을 재건한 느헤미야
- 복음으로 여는 느헤미야 -

느헤미야1:1-11, 사도행전3:1-6

정윤돈 목사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과 노예로 살아가면서 오만가지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시고 237 나라까지 살릴 수 있는 비전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히려 더 굳게 언약을 붙잡고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귀한 믿음의 전도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전이다. 광야시대에는 이 성전이 상황에 따라 성막, 장막, 회막, 초막이라고 불렸고 솔로몬 왕 이후부터 초대교회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었다. 성전의 본질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살려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전회복과 재건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생명, 예수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냥 생명만 얻으면 안 되고 풍성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 장 10 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말씀하셨다. 내 안에 평안함이 올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스도로 결론나면 아무 것도 문제되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은 그 결론을 내리길 바라신다. 베드로는 성전의 미문에 있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였다. 베드로처럼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진정한 성전재건과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진정한 성전을 미리 본 것이다. 그것에 도전했다. 오늘은 그 중 한 인물인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한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받는 중에 느헤미야처럼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가문과 지역사회와 직장과 학교와 선교현장의 무너지고 불타버린 빈 곳을 찾아서 치유하고 재건하는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에 대한 언약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1. 첫 번째로, 느헤미야서 1 장부터 13 장까지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자 한다.

(1) 1 장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장면이다. 1 장 3 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성'은 성벽을 말한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했다. 그 때, 1 장 11 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다. 미리 응답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2) 그후 2 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근심하는 모습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허락했을 뿐 아니라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 장 2 절에서 10 절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 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평소에 24 시간 기도하는 체질이었기 때문에 응답이 와도 응답에 취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다. 2 장 5 절에서 6 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 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러면서 부탁을 한다. 7 절에서 8 절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재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므로 왕이 허락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말을 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느낀 것이다. 2 장 9 절이다. 왕이 더욱 도움을 준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런데 2 장 10 절에는 이 응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 반드시 기분나빠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단이 역사한다. 그들은 복음이 없기 때문이다. 수준이 낮은 영적상태이다. 축복해 주지 못하는 것은 영적 문제이다.

(3) 3 장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성벽을 분담하여서 건축하는 장면이다.

① 이때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이 맡은 부분을 중수하였지만 드고아 귀족들은 협조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느헤미야 3 장 5 절을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바른 성경을 보면, '그들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들 중 귀족들은 자기 상관들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주 나쁜 영적상태는 호응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문제, 먹고사는 것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영적인 여유가 없었다.

② 느헤미야 3 장 8 절에 보면 금장색과 향품 장사도 참여하였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할해야의 아들 웃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부자인 장사들까지도 성벽 재건을 담당하였다. 또 3 장 12 절에 보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아들과 딸들도 참여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것을 보면 부잣집 가문의 렘넌트들도 겸손하게 순종하며 성벽재건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집과 마주 대한 성벽부분을 중수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중수하였다는 말은 '보수하였다' 라는 의미이며, 영어로는 'repaired'를 의미한다. 느헤미야 3 장 10 절에 보면 '그 다음은 하루맙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삽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3 장 28 절에서도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29 절에서도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복음전파와 전도의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우리들은 우리 집 앞과 주변에 무너져 있는 가정과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치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4 장에 보면, 산발랏 등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벽건축을 방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응답받을수록 반대자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란다.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속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붙

잡아야 한다.

① 4 장 1 절에 보면 그들은 비웃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4 장 3 절에 보면 도비야는 무시하고 조롱하였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② 그러면서 그들은 위협하고 협박도 하였다. 4 장 11 절이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5 장에 보면 가난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장면이 나온다. 느헤미야는 성벽재건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실적인 부분을 먼저 수용하고 해결하는 지혜를 가진 리더자였다. 6 장에 보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그들은 4 번이나 사람을 보내어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유인하려 하였다. 6 장 2 절과 4 절이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7 장은 가나안으로 돌아온 백성을 계수하는 내용이다. 백성들의 총수 42,360 명이었다. 그런데 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손해가 있었기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페르시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8 장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자고 백성 스스로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 느헤미야 8 장 1 절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때서야 그들은 성벽재건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재건은 말씀의 재건임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것이 에스라의 역할이었다.

③ 9 장에 보면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죄를 자복하였다. 9 장 3 절을 보면 낮의 4 분의 1 즉, 3 시간은 말씀을 듣고 3 시간은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에 낮 사분의 일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사분의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10 장에서는 말씀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명단을 기록하고 봉인을 하였다.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카카오톡에 명단을 올리고 zoom 을 이용한 지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성도들이 300 지교회의 사역자로 명단을 올리시기 바란다. 11 장에서는 위험한 예루살렘에 거주할 백성들을 뽑았다. 이들은 영적인 비밀결사대이며, 전도캠프요원, 교회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교회를 지켜야 한다. 12 장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하였다.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직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성직자들의 명단을 적고 역할을 부여하고 성전재건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13 장은 결론으로, 12 년 만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를 개혁하는 장면이다.

2.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실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현장에서 실천했던 전도자의 삶 21 가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느헤미야는 사도행전 1 장 1, 3, 8 절 즉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안에서 21 가지의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 받은 영적서밋, 기능서밋, 문화서밋의 모델이었다.

(1)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다. 느헤미야는 진정한 성전의 완성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과 성벽 안이 아니라 성벽 밖에 있는 갈보리산, 감람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기도하셨다. 이후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했을 때 진정한 성전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를 느헤미야가 미리 발견한 것이다.

(2) 천명, 소명, 사명이다. 느헤미야는 포로생활이 약 150 년(BC. 605 – BC.444 3 차 귀환)이 지난 4 세대, 5 세대였지만 렘넌트로서의 천명, 소명,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언약을 후대에게 잘 전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3) 당연, 필연, 절대이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회복해야 할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13 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4 가지를 개혁하였다. 첫 번째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십일조와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과 이방 결혼을 통하여 들어온 미신, 무속, 점술, 우상을 버리는 것이었다.

(4) 일심, 전심, 지속이다. 느헤미야는 RUTC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일심, 전심, 지속하였다. 그는 이 과정 속에서 근원적, 대표적, 시대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인 하늘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였다.

(5) 오직, 유일성, 재창조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무너진 성벽과 타버린 성문과 같은 빈곳을 치유하기 위하여 오직 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일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창조하는 참된 응답을 주셨다.

(6) 24, 25, 영원이다. 느헤미야는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성전재건을 위해 52 일 동안 24 시 집중하였다. 그 결과 하나님의 25 시를 체험하였고 영원히 남는 RUTC 성전과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을 남겼다.

(7) 각인, 뿌리, 체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생활, 노예, 포로, 속국생활을 수 백 년 동안 하였지만 그들의 잘못된 창세기 3 장, 6 장, 11 장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회복운동과 RUTC 성전운동을 통하여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였고 결국은 유대인의 후대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성도들로 인하여 참된 복음운동이 시작되었다. 결국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도자의 삶 21 가지를 통하여 성벽과 말씀을 회복시켰고, 유대민족과 나라가 수 천 년 동안 유지 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언약적인 인물이 되었다.

결론으로, 오늘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CVDIP 를 찾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한다.

1. Covenant, 미리 보기이다. 느헤미야는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만이 참된 성전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언약과 복음을 미리 보았다. 그 참된 성전은 예수생명과 예수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다.

2. Vision 비전, 미리 찾기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와 5 천 종족을 복음화 할 수 있는 237 시스템을 미리 찾는 것이다.

3. Dream 드림, 미리 누리기이다. 24 시간 누릴 수 있는 나의 전문성과 달란트를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하기, 자격증 따기, 전문팀에 참여하여 인턴십받기 등을 해야 한다. 그곳이 응답의 현장이 될 것이다.

4. Image 이미지, 미리 정복이다. 4 차 산업혁명시대와 인공지능시대를 미리 정복해야 하다. 그 방법은 미래의 그림이 구체적으로 보일 때까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5. Practice, 미리 성취하기이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지속할 때 느헤미야처럼 나와 후대들에게 전문성의 문, 경제의 문,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릴 것이다. 다음 한 주간은 RUTC 성전재건을 위하여 내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시기 바란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응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졸업을 하고,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고, 새로운 학교로 가는 모든 렘넌트들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군에 가는 아들도 그 현장에서 평생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응답을 얻게 하시며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요셉처럼 누리게 하시며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